

## 르세라핌 허윤진, NBC '켈리 클락슨 쇼' 출연



▲ 그룹 르세라핌 허윤진(왼쪽)과 맥스. 사진=쏘스뮤직

그룹 '르세라핌' 멤버 허윤진이 미국 NBC 인기 프로그램 '켈리 클락슨 쇼' (The Kelly Clarkson Show)에 출연했다.

허윤진은 13일 방송된 '켈리 클락슨 쇼'에서 미국 싱어송라이터 맥스(MAX)와 함께 '스투피드 인 러브 (feat.

르세라핌 허윤진)(STUPID IN LOVE (feat. HUH YUNJIN of LE SSERAFIM)' 무대를 선보였다.

'켈리 클락슨 쇼'는 미국 최고 권위의 TV 시상식인 에미상(Emmy Awards)을 세 차례 수상한 인기 토크 쇼 중 하나다.

이날 허윤진은 맥스와 함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거나 애드리브를 주고받는 등 무대를 즐기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공연이 후 진행자 켈리 클락슨은 "허윤진과 르세라핌은 다음 달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이하 '코첼라')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르세라핌은 내달 13일과 20일 '코첼라'에 출연한다. 이들은 역대 한국 가수 중 테비 후 최단기간에 이곳에서 단독 공연을 펼치는 아티스트가 됐다. '코첼라'는 매년 2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운집하는 미국 최대 규모 음악 축제 중 하나로 영향력 있는 정상급 뮤지션들이 대거 출연한다.

## 샤론 스톤 “남자 배우와 성관계 강요 받았다”

배우 샤론 스톤(66)이 제작자에게 동료 배우와 성관계를 맺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스톤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영화 ‘슬리버’(1993)를 촬영할 때 제작자인 고 로버트 에반스(1930~2019)가 빌리(윌리엄) 볼드윈과 친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와 성관계를 가져야 좋은 연기를 할수 있다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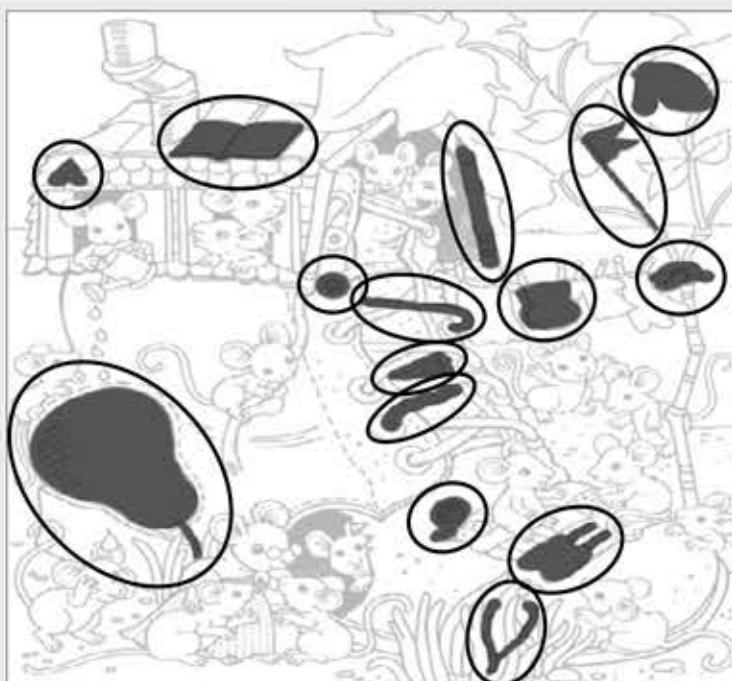
▲ 배우 샤론 스톤. 사진=AP/연합뉴스

스톤은 “에반스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에반스는 자신은 애바 가드너와 성관계를 맺었고, 나도 빌리 볼드윈과 섹스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와 섹스를 한다면 빌리 볼드윈의 연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케미스트리가 생기면서 영화를 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스톤은 에반스의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영화의 진짜 문제는 나였다. 진짜 문제는 나는 너무 엄격했던 것 이었다”며 에반스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스톤은 지난 2021년 회고록에서 이같은 일화를 공개했지만 당시에는 에반스나 볼드윈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에반스는 ‘러브 스토리’(1971) ‘대부’(1972) ‘차이나타운’(1974) 등 할리우드의 레전드 영화 제작자로 유명하다.

스톤은 1992년 영화 ‘원초적 본능’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스톤이 취조실에서 도도하게 다리를 바꿔 꾼 모습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장면으로 꼽힌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1516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4에 있습니다)

3		4			9		8	
	5			6			4	9
8			4		5			7
2	6			5				
	8		9			1	7	
5	7		8					6
		5				6		3
2		5		3				
		1		4		8		

## 아리아나 그란데, 정규 7집 발매



▲ 아리아나 그란데. 사진=instagram/arianagrande

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일곱 번째 정규 음반으로 돌아왔다.

유니버설뮤직은 11일 “아리아나 그란데가 총 13곡을 담은 정규 음반 ‘이터널 선샤인’ (eternal sunshine)을 지난 8일 발매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반에는 팝의 거장 맥스 마틴, 아리아나 그란데의 메가 히트곡을 함께 작업해온 일리아 살만자데 등 세계적인 프로듀서가 참여했다. 발매 직후 ‘올해 스포티파이에서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재생된 앨범’으로 기록됐고, 글로벌 스포티파이 톱 10 차트에 수록곡 5곡을 올렸다. 음반 발매에 앞서 선 공개된 ‘예스, 앤드?’ (yes, and?)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수록곡 중 ‘위 캔트 비 프렌즈’ (we can't be friends)의 뮤직비디오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을 오마주해 화제가 됐다. 뮤직비디오 연출은 위켄드와 도자켓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크리스티안 브레슬라우어 감독이 맡았다.

‘팝의 여왕’으로 불리는 아리아나 그란데는 데뷔 음반을 포함해 지금까지 발매한 여섯 장의 정규 음반 모두로 1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다섯 번째 정규 음반으로는 빌보드 ‘핫 100’ 1~3위를 동시에 휩쓰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